아토피 · 건선 · 난치성피부질환전문
이든한의원
진료시간
오전 9:00~1:00
(점심시간 1:00~2:00)
오전 2:00~7:00
(토 · 공휴일 5시까지, 주말 휴진)
원장 송 창 수
경기고양시일산동구정발동826번지SK엠시티오피스텔2202호
TEL : 02)2264-8822 · 8833
FAX : 02)2264-8833

JTNTV.KR 지저스타임즈 심볼

지저스타임즈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학생 모집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 출구 송내역방향 200m)
대표전화:032)323-5552, Fax : 032)322-0099
H · P:010)2956-9191 이간:032)321-9109 E-mail : keyone209@hanmail.net

| 이사장 : 정기환 | 사장 : 소진우 |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62호 2013년 1월 6일 주일



대망의 새해 2013년이 밝았습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JTNTV인터넷방송과 지저스타임즈를 구독해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과 이사님들 위에 새해에도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또한 일터 위에 가정 위에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국민이 되도록 열심히 섬기겠다며 출범하는 2013년입니다. 신문사와 구독자님 모두가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본 신문 방송은 전국 22개 지사와 27개국 지사와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 보다 신속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국민을 행복하게 잘 사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은 다 기대가 큽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기대가 있다면 신앙이 회복되고, 악한 음녀세력을 물리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문서선교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복음지로서 옹골진 잣대로 펜촉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2013년 새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외 직원 일동 배상

사설

형통과 불통

새 정부가 들어선다. 치열한 선거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라는 안정된 분위기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님에 대한 새로운 별명(?)이 난발되기도 했다. 소위 '불통' 이라는 말이다. 물론 자신이 한 약속은 아니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의지는 좋다. 그러나 정치란 꼭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다. 옛날 한 임금이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이냐? 고 물었다.

'정치란 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자는 그 덕을 그리워하여 찾아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왕이 정치가 무엇인가고 묻는다. 그러자 공자는 '정치란 뛰어난 자를 뽑는데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왕이 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자 공자는 '재물을 절약하는 게 정치'라 했다. 이 세 임금의 같은 질문에 각기 다른 대답을 한 공자에게. 그 제자인 자공이 묻는다.

'세 임금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각기 다른 대답이 왠일입니까? 고, 공자는 대답하기를 '섬나라는 영토는 작은데 도읍이 크고 백성에게 모반심이 있으므로 가까운데 있는 사람을 귀복시키면 자연히 먼데 있는 사람도 그 덕을 그리워하여 찾아드는 법이라'고 하고, 또 노나라 애공에게는 세 대신이 있어 정사를 자기 마음대로 천단하여 밖으로는 이웃나라에서 현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안으로는 서로 결탁하여 파당을 만들어 왕의 총명을 가리워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자를 뽑으라 하였고, 다음 왕인 제나라의 경공은 그 생활이 화려하여 필요 없는 용문이나 노침대를 세우고 궁중의 거처를 사치스럽게 꾸며 국고를 허비하였고 나라에 공도 실력도 없는 자에게 녹지를 내리므로 필요 이상의 낭비가 심하므로 절약하는 것이 정치라고 한 것이다. 고 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세종시의 일로 불통이라는 별명(?)을 들었다. 이젠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 시대에 맞게 형편에 맞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사실이지 그러고 보면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을 그저 듣기 좋으라 한 것은 아니었다. 시대와 형편에 맞게 약속이 늦어 질 수도 혹은 공약은 안 하였다 할지라도, 설사 그 어떤 일이 상대후보의 공약이라 해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실행 할 수 있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미래에 남을 좋은 정치인이 될 것이다.. 새해엔 국가적 발전의 기대와 기독교에서도 신실한 목회자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온 성도가 자부심을 회복하는 해가 되는 희망찬 해가 되기를 진실로 바란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www.inamhyun.org

謹賀新年

"2013년 표어" 넘쳐나는교회
복음이 충만한 교회 / 말씀이 충만한 교회 / 섬김이 충만한 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예배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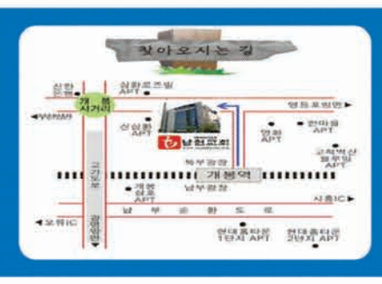
주일낮예배	1부	주일 오전 7시 30분	대예배홀(3층)
	2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대예배홀(3층)
	3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대예배홀(3층)
주일청년예배(4부)	1청년부	주일 오후 2시 30분	비전홀(1층)
	2청년부	주일 오후 2시 30분	1세미나실(2층)
주일오후예배		주일 오후 3시	대예배홀(3층)
수요예배		오후 7시(8)7시 30분	대예배홀(3층)
수요심야기도회		오후 8시(8)8시 30분	대예배홀(3층)
새벽기도회	1부	매일 오전 5시	비전홀(1층)
	2부	매일 오전 6시	비전홀(1층)

주일학교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부(3세이하)	1층 영아부실
유치부(4~7세)	1층 유치부실
1초등부	2층 1초등부실
2초등부	2층 2초등부실
중등부(중1,2,3)	2층 중등부실
고등부(고1,2,3)	2층 고등부실
태아사랑학교	1층 유치부실
아기학교	1층 유치부실

■ 부교역자
· 부 목 사 : 김성집, 최성일, 여필종, 이정훈, 윤영배, 최영만, 고두빈
· 찬양목사 : 이인섭
· 전 도 사 : 손원경
· 교육 전도사 : 서은영, 원은권, 정의한
· 파송 선교사 : 김상식, 이성진(필리핀), 김진우
· 시무장로 : 강성재, 이선훈, 임승수, 장현용 김대웅, 강권학, 전영수, 이환근 정인호, 박석환, 강성학, 김상근 김문하, 나찬영, 지윤섭
· 은퇴장로 : 배재호, 정현철, 황이만, 정형규
· 협동장로 : 김태일, 심상길, 윤방식, 엄익범 김홍기
· 찬양지휘 : 김성강, 김동근, 류현주, 고현경
· 피 아 노 : 서혜원, 김서진, 김찬미
· 오 르 간 : 이지영
· 신 디 : 이혜미, 김소희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www.inamhyun.org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 화 / ☎02)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장실 ☎ 02)2684-3317



CTS기독교TV가 마련한 새해특집



2012년을 마무리하며, 2013년 새해를 맞아 CTS기독교TV가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기독교TV에서는 2012년을 마무리하고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13 신년예배〉가 12월 마지막 날 밤 11시 50분 분당중앙교회에서 현장생중계 되었다. 분당중앙교회 담임목사 최종천 목사는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의 설교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예배로 감동되는 송구영신의 시간이었다.

송년특집으로 12월 31일(월) 저녁 7시30분부터 새해 1월 1일(화) 밤 12시까지 〈특선영화 ' 그 청년 바보의사'〉에서는 33년의 짧은 생애동안 의사로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했던 故 안수현 씨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은 그의 삶을 통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송년특집 12월 29일부터 31일 새벽 1시까지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어린이들만의 동화였던 '헨젤과 그레텔', 그림형제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독일작곡자 훔퍼딩크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온 가족이 모여 감동과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12월 31일 밤 9시부터는 송년특집 〈2012 생명나무신학심포지엄〉 '선악과'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한 한국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며 열린 2012 생명나무 신학 심포지엄을 가졌다.

청년들의 상처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는 〈청년독수리300〉에서는 12월30일 저녁부터 1월 4일까지 송년특집으로 인천최초의 서구식개신교 예배당,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에서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사립학교,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학원의 후학인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들과 한국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신년특집 〈7000미라클〉은 아이티 특집으로 아이티 현지의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현장과 함께한다. 의료선교와 문화 선교로 아이티에 복음을 전하는 전문의료사역단체 GIC(Global Image Care)의 사역을 담은 "아름다운세상"에서부터 아이티 현지의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예수사랑여기에", DFI선교센타를 통해 현지인들을 교육시키는 김헬렌선교사를 조명하는 "열방을 향하여", 현지 교회를 섬기며 천막촌 사역을 하고 있는 김월림 선교사와 함께하는 "땅끝으로"까지. 우리에게는 잊혀진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그 땅을 찾아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을 만나본다.

1/7~11(월~금) 오전 11시, 오후 2시 50분, 1/7~10(월~목) 밤 11시, 1/12(토) 밤 9시 30분, 신년을 맞아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 세대교체가 잘 이뤄져서 한국교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할렐루야 교회와 지구촌교회의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를 초대하고, 삶의 간증은 물론 세대 교체의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현재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만나본다.

또한 12월 31~1/2, 1/7~8(월~화) 오전 9시 30분, 1/2~3(수~목), 1/9~10(수~목) 새벽 1시, 저녁 6시에는 CTS 예술단 정기음악회〉에서는 신년을 맞아 CTS오페라단과 CTS 교향악단, CTS 코랄과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를 준비했다. 2013년의 시작과 함께 찬양과 연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감동의 음악회가 될 것이다.

또는 1/19(토) 오후 3시 30분, 1/21(월) 새벽 1시 30분 신년특집 〈CTS 스페셜〉에서는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여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새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목회자가 자성해야 할 윤리변화와 지켜나가야 할 한국기독교 전통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1/4(금) 오전 9시 30분, 1/6(주일) 새벽 1시 40분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의 설교와 함께하는 〈2013 신년예배〉를 생방송이 시청자들을 찾아본다.

꿈과 희망의 선율 '사랑의 음악회'

문화 활동은 장애인들에게 마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다

장애인에게 음악은 독특하고 의미 있는 접촉을 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언어이다. 음악을 통해 그들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순화되고 사회활동을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다. 조금은 서툴고 어설프지만 이러한 문화 활동은 장애인들에게 마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

발달장애1급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피아노를 10년 동안 배우며 놀라운 집중력과 인내력을 키웠다. 이제 피아노가 아닌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을 배우고 있다.

스펀지처럼 쑥쑥 흡수시키는 이 학생은 이제 능숙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또 다른 학생을 위해 반주도 한다. 2012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를 통해 미래의 예술가를 꿈꾸고 있다.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는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1여 년간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4개 지역에서 오케스트라, 합창교실을 운영하며 전문 강사진과 보조강사 및 재능 나눔을 통하여 60명의 장애인에게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사장 최공열 장로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최공열)는 2007년 전통문화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장애인문화아카데미를 실시하여 2008년 뮤지컬"거위의 꿈" 2009년"축제"등 다양한 무대로 구성하여 문화로 장애인에 정서적으로 순화되고 사회활동을 참여하며 장애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왔다.

지난 12월 26일 CTS아트홀에서 "사랑의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오후 3시에 개최되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방송인 이지영의 사회로 30여명의 발달장애인오케스트라인 나눔오케스트라 공연과 서울장애인합창단의 공연, 송형익 교수의 클래식기타, 밤벨연주, 김남재 & 이노을의 휠체어댄스 등으로 많은 박수갈채로 사랑의 음악회는 열기를 더했다.

이처럼 음악은 서로 다른 마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으며 누구나 향유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이번 사랑의 음악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려내는 꿈과 희망의 선율이 되었으며, 똑같이 다함께 하나 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을 선사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2013합창워크숍 개최

교회찬양대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워크숍 'Searching Festival 2013.01'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다.

한국교회음악출판협회(회장 정병철 장로)가 주최하는 합창워크숍 'Searching Festival'은 매년 겨울과 여름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세미나는 "Good to Great! 좋은 합창에서 위대한 합창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찬양대 지휘자들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창이론 및 연주기법에 관한 8개의 강의와 2013년 1월에 각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신간 성가합창곡집 8권의 관한 리딩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합창단들의 초청연주도 계획 돼있다.

세미나는 찬양대 지휘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테크닉과 합창음악지식에 대한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응용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합창워크숍 'Searching Festival'의 강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휘 콩쿨1위 입상자인 조장훈 교수, 독일 합창음악의 전문가인 김선아 교수, 서울시 뮤지컬단 음악감독인 김형삼 교수가 맡는다.

합동총회장 "노래방에서 도우미연관"인정

예장합동총회 총회장 정준모 목사와 총무 황규철 목사가 그간 총회의 무리를 일으킨 여러 가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전국 노회장들과 상비부 임원들에게 해명하고 나섰다. 이날 모임에서 각 노회장과 상비부 임원들은 그간 의혹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알고 보니 노래연습장이었고, 두 여인은 도우미인 줄 몰랐다 "

지난 예장합동 정기총회 이후 총회 분란의 원인이 됐던 정준모 총회장과 황규철 총무가 27일 오전 11시, 전국 노회장과 서기 및 상비부 임원들과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노회장과 상비부 임원들은 지난 총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정준모 총회장의 노래주점 의혹을 비롯해 황규철 총무의 가스총, 용역 동원 사태에 대해 성토했고, 정 총회장과 황 총무의 해명이 있었다.

정 총회장은 특히 노래주점 의혹과 관련해"같이 갔던 사람들을 따라 갔는데 간판이 노래연습장이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건전한 장소였다"며"갑자기 도우미 두 명이 들어왔고, 도우미인지 전혀 몰랐다. 같이 간 목사는 아주 잘 알더라.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나하고 도우미하고 춤추고 놀았다는 동영상, 사진이 있다는데 있으면 여기서 내놓으라. 있다면 총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 총회장은 그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래주점에 간 적이 없고 도우미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총회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회장들과 임원들은 계속해서 날카롭게 날을 세워 비판을 가했으며, 강한 반감은 식을 줄 몰랐다.

정 총회장은"속회를 열 법적 근거 없다"주장

특히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총회 속회에 대해 정 총회장은 속회를 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총회장은 "파회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우리 교단은 파회 이후에 속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비상총회 열어서 총회를 분열시키려는 세력도 있다는 점 알아 달라. 지금까지 너무 죄송했고 자숙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석회의에 함께 참석한 황규철 총무도 총회 당시 가스총 소지와 용역 동원 사태에 대해"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꼈다"는 일관된 해명을 했다.

한 노회장이"본인 자신의 신변보호를 엄중하게 하면 되지, 왜 총대들이 억압적인 감시를 받아야 하는가. 그 일로 인하여 교단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비판하자, 황 총무는"억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 노회에서 촉구하고 있는 총무 사퇴에 대해서는"이런 상황과 물리적 힘에 의한 사퇴는 절대 못한다"며"총회가 정한 법과 순리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면 총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동비대위측은, 1월 3일 노회장회의서 비상총회 결의하기로

한편 이날 연석회의가 끝난 후, 노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는 따로 만남을갖고 이후의 대응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정준모 총회장이 '속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비대위는 법적 문제가 있어도 비상총회를 강행하기로 재차 결의했다. 한 노회장은"지금은 비상시다. 합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비상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며"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하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 이제는 비상총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1월 3일 대전 대동교회에서 전국 노회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최종 결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파종진목사 이사장: 정기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1개 지사 / 해외 25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1층 제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謹賀新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수 요 일 : 오후 7:30
주일오후 : 오후 2:00 새벽기도 :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謹賀新年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김정예,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임 홍향표 목사
(한경총 총무)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152-861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02)2625-0982

謹賀新年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우슬초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A) 319동 1803호
☎ 02)414-1191 H.P 011)775-5154

謹賀新年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생명전화 : 031)378-9349
담임목사 : 김농주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성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 · 배 · 시 · 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 알파과정 | 오후6(주일)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 디사이플스 | 오후 7:30(화)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 주중새벽예배 | 오전 05:30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 저녁 8:30
주일학교 | 오전 9:20
WIWA영재교육 | 오후 1:00(토)
중 · 고등부 | 오후9:30(주일)
청년부 | 오후 7:30(토)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http://www.반석교회.kr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H.P 011)9027-9712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 식 목사
(한경총 총회장)
주일예배안내
오전 11시 1부, 오후 2시 2부
426-1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충현교회

담임 이효은 목사
(한경총 감사)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7시
412-847 경기도 고향시 덕양구 화정동 891
☎ 031)965-7682

한기총 신년 메시지

한기총과 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한기총이 새역사를 쓰게 해주길

존경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역원, 회원교단장 및 단체장, 그리고 1,200만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1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로써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의 위대한 발전을 위해 우리 한기총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채찍질할 것은 채찍질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012년은 시련과 고난과 은혜와 영광이 교차되는 한 해였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비가 온 다음 땅이 단단히 굳어지고, 홍수 후에 아름다운 샘이 솟아나듯이 우리 한기총이 혼돈의 늪에서 빠져 나와 놀라운 회복의 새 역사를 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한기총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55,000개 교회와 1,200만 성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대표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13년 새해에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국교회'(Revival 2013)가 될 수 있도록 일로매진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표회장 본인은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201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 을 한 해는 인생의 위기에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노숙자 등 사회의 음지에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펼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기총과 정부의 협력으로 국민행복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은 3월 마지막 주일 북한에 가서 WEA와 한기총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예배가 남·북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첫 해가 될 것이며, 4월 9-14일에 있을 하와이 이민 기독교 110주년 기념 한민족 복음화 대회를 한기총이 주관하게 되었으며, 또한 2014년 WEA 세계 총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범사와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신년 벽두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신년사

꿈과 소망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2013년 한해 되길



총회장 이재갑 목사
웨신총회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13년, 희망과 도약의 계사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꿈과 소망을 가득 담아 떠 오른 햇살이 웨신가족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성역위에 눈 부실정도로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슴 떨리는 기쁨의 진동이 있는 곳에 천지는 협력하고 창조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는 기쁨과 설레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총회원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벅찬 감격과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거룩한 부르심에 화답합니다.

꿈과 소망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2013년 한해 우리의 삶과 땀 흘리는 사역의 현장에는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고 범사에 복에 복이 더하여 지리라 확신합니다. 동역자들이 경영하는 푸른 초장에는 양떼가 덮이며 물댄 동산처럼 풍요로움으로 적시고 흘러내려감의 역사는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웨신총회는 교계의 본이 되며(벧전5:3) 교단의 표준총회로 위상이 정립되고 품위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활짝 열린 문호를 통해서 마음과 뜻이 통하는 새 가족들을 만나고 재개된 웨신대학 목회대학원을 통해서 목회와 사역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공급될 것입니다. 끈끈한 형제우애와 가족사랑으로 총회는 화합되고 그 공명현상은 지교회와 노회에서 화목함과 성장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늘 숨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작은 것을 가지고도 섬기며 우리 모두 서로가 소중한 한 몸임을 깨닫고 더불어 함께함이 내게 더하신 축복임을 알고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와 중보로 작은 손길이나마 붙잡고 서로 협력하면 웨신 가족 한 분, 한분이 산위의 동네가 되고 등경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신총회 총회원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2013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6일
총회장 이재갑 목사



예장합동 비대위 비상총회를 개최키로 결의

9월 총회 때까지 교단 양분 상황으로 갈듯 상황에 따라 교단 분열 가능성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 목사)는 비상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뉴스파워에 의하면 비대위는 3일 오후 2시 총회회관에서 비대위를 지지하는 전국의 노회장, 부노회장 등 18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참석자 185명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정준모 총회장이 제97회 총회 속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대위가 비상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의함에 따라 예장합동 총회는 사실상 정준모 총회장을 지지하는 측과 정준모 총회장을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오는 9월 총회 때까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교단이 양분되는 파국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예상이 든다.

한편 임원 사퇴 건은 활동의 일관성을 위해 사퇴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전원 유임했다.

학생축제서 '크리스마스' 단어 삭제지시논란

청담高

서울 압구정동 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가 학생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특정종교를 상징하다며 삭제를 지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담고는 오케스트라반 등 교내 동아리들이 24일 오후 개최한 '크리스마스 음악축제' 포스터 등에 실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 단어가 특벙종교, 즉 기독교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동아리들은 결국 '크리스마스' 단어를 포스터 등에서 삭제를 했고, 이날 '드림콘서트'로 제목을 바꿔 노래와 연주 등 발표회를 가졌다.

박창호 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특정종교를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고 관계자는 "노래와 악기 등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발표회를 열었을 뿐, 특정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삭제키로 담당부서와 동아리 측과 사전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한편, 박 교장은 지난 9월부임 직후 종교연구반 기도동아리 '카리스'의 폐지를 지시해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헬라어로 '은혜'란 뜻의 이 모임은 청담고 학생들이 10년 전 자율적으로 만든 기도와 예배 모임이다. 2002년 학생 2~3명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모임이 120여명이 될 만큼 성장했다.

카리스 부원들은 매일 아침 7시 30분 'QT'를 하고 수요일 정오에 예배를 드린다. 기도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은 활기가 넘치고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 측의 이 같은 지시와 입장은 궁색한 변명일 뿐,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특정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교육청의 공문 내용을 학교 측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오히려 종교를 보호하고 학생들의 심정을 잘 다독거려야 하는 것이 학교의 임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내 자식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 대놓고 항의하지는 못하지만 잘 해오던 예배모임을 폐지시킨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담고 관계자는"특벙종교 활동을 허락할 수 없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라며"종교연구반 해체를 지시한 것은 기독교라는 특정종교라는 이유도 있지만, 동아리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다" 고 해명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학교 사정을 파악한 뒤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진우 목사 2012년-2013년 성회일정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월
2-4 천성교회(김영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원장)
9-11 온사랑교회(최태식목사)
13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6-18 신성교회(정대호)
19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3-2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9 예제교회(류준모목사)
30-1/2 흰돌교회(송우종목사)

2012년 2월
6-9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12 예수소망교회(신동식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3-15 신갈장로교회(이광수목사)
16 성산수양관(윤호균목사)
19-22 평강교회(박성주목사)
27-29 증평평강교회(고영철목사)

2012년 3월
축복대심방
5-7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2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4월
2-4 하예성교회(강대종목사)
5-6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9-10 정기노회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16-18 동탄제자들교회(이석원목사)
23-25 주사랑교회(김주환목사)
2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012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7-9 우리교회좋은교회(이평찬목사)
13-16 성신교회(손양도 목사)
21-24 광음교회(김동기목사)

2012년 6월
3-6 주찬양교회(윤병구목사)
7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12-14 베데스다교회(허영혜목사)
17-30 2주연속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2년 7월
2-5 사명자영성원(송요섭원장)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9-10 신학생여름세미나
23-26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012년 8월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8-10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16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감림산기도원(이옥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3-5 주우리교회 (이황규목사)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 단 총 회
24-26 일신제일교회 (천창대목사)
30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얼산기도원 (이영금원장)
15-16 정기노회
19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6 갈멜산기도원(임예제원장)
28 천보산기도원(유택진목사)
29-31 김만지역기독교연합성회(회장·한신현목사)

2012년 11월
3 주향기교회(김홍수목사)
5-9 선교지방문
11-14 동서울교회(라계돈목사)
19-21 경천교회(이원경목사)
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6-28 예수비젼교회(이승엽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회(예복교회)
10-15 필리핀선교대회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천보산기도원(유택진원장)
21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013년 1월
1 - 3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7 - 9 장암성결교회(강석전 목사)
10 강남금식기도원(김성광 원장)
14 - 16 길산교회(김동한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1 - 23 참좋은교회(기갑상 목사)
28 - 30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13년 2월
4 - 7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 - 14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 - 20 광정성결교회(남봉수 목사)
22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 원장)
25 - 28 통영미수교회(전웅구 목사)

2013년 3월
축복대심방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3년 4월
1 - 3 광릉내교회(김상용 목사)
8 - 11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 - 16 정기노회
22 -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 - 1 주우리교회(이규황 목사)

2013년 5월
6 - 8 은혜교회(유권재 목사)
11 주향기교회(김홍수 목사)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 - 15 일신제일교회(천창대 목사)
20 - 22 천성교회(이재진 목사)
27 - 31 선교지방문

2013년 6월
3 - 5 나눔애교회(최종덕 목사)
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 - 12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16 - 29 2주연속특별심야기도대성회 (예복교회)

2013년 7월
1 - 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8 - 9 성산교회(이기재 목사)
15 - 17 은광교회(추영석 목사)

2013년 8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 - 8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2 - 15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 - 22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 - 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새해에 드리는 기도 역대상4:9-10



정기환 목사
지저스타임즈, JTN방송 이사장

구약성경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500명이 넘는 생소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루해서 건너뜁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의 6대손으로 46명의 이름이 계속되다가 중간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열식으로 이름을 쭈욱 부르시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성경에 딱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낯선 이름이 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본래 야베스의 뜻은 '고통' '수고' 입니다. 이름치고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현실의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면 오늘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때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4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좋다 - 더 좋다 - 최고로 좋다'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단어를 반복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최상의 복을 주십시오' 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이란 땅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실패하거나 추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극히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에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 바로 다음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미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주신 승리를 오래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할렐루야!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응답되는 201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새해 신년사





이춘복 목사
예장합동 남현교회 상임이사

2013년 새 해가 밝아왔습니다. 1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해가 떠오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일까요?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년은 누구에게나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면 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포도주는 새 가족부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셨을까요? 새로운 결심으로 새 해를 시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새 해가 돌아올 때 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작심 3일 이라는 말처럼 새로운 결심이 3일 밖에 가지 않는다 해도 새로운 결심을 해야만 발전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 축복의 소망으로 시작하셨으며 좋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지저스타임즈 독자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범성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대망의 신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한국교계와 이 나라 위에 충만하여 한국교회가 날로 성장되어 이 나라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안정이 되고 번영하여 온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임진년은 천재지변도 많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계도 갈등과 분열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으로 국가의 대사인 대선도 별일 없이 잘 치루어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했다. 아쉬운 마음은 북한이 개방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과거보다도 더욱 도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여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적화통일의 의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한국의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의 기대와 소망이 컸지만, 매번 실망과 후회로 바뀌지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정부만은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져봅니다. 한국교계가 외적으로 이단과 이방종교와 종자연과 안티기독교 등의 공격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이기주의와 자유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심령이 병들어가고 부패되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미움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신앙의 좌표를 상실하여 혼돈 속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캄캄한 망망대해에 방향을 잃은 배와 같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한국교계를 지저스 타임즈가 복음의 밝은 빛을 발하여 한국교회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주고 인도하는 등대가 되어 한국교계가 실추된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등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제18대 대선을 통해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당선자 박근혜)이 당선 되었고 2013년은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새 정부가 시작된다.

지난 정부시절 우리국민은 숫한 아픔과 실망감 속에서 남북관계의 경색과 독도의 영유권문제로 생떼를 쓰는 일본의 만행, 안으로는 총회가 갈라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둘로 갈라지는 등 한국교회가 어수선 했다.

게다가 일부 지상파 방송의 편파방송, 의도적인 폄훼세력들, 안티세력들의 복음진리의 왜곡과 신천지 이단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한국교회와 기독교 각 기관에 파고들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 숫한 아픔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행복한 나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 드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약속을 믿고 모든 분야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새해...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사)세계개혁교단연합회,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가 새로운 도약으로 단합되고 화합하는 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2013년 한국교회는 WCC를 철저히 배격하며, 국가의 안녕과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대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양정섭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김요셉 목사
(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2013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에 찬 새해에 한국교회연합 회원교단과 소속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새 아침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땅에 떨어뜨린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의 변질은 곧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 이니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것만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 민족 복음화와 교회의 부흥,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아울러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의 벗이 되어 돌보고 섬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한국교회연합이라는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무를 더욱 든든히 세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신학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하나됨과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선교적 노력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2013년 희망에 찬 새해 아침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연합과 함께 하는 모든 교단과 소속된 교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하신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천성교회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구 분	시 간
새벽기도회	새벽 5:0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근하신년
쉴만한물가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담임 김안식 목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린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 . 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 . 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야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리셉트 성경공부	(화) 오전 9:00
	(화) 오후 7:00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근하신년
2013년 1학기 수강생모집

김동기 목사
▶명품속독 지도사 과정◀
수강신청문의: 010-9119-7661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근하신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벧엘교회

담임 정성준 목사
■ 예배안내문의 ■
010-2549-917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2~46(3층)

근하신년
세계기독교평화군단
사관학교(학사 석사)

대전학장 박양우 목사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257 번 길 40
(구, 낭월동 611 석천들시 106동 1102호)
☎ 042)526-6378 010-2872-4357

근하신년
서울방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비구 상동 316 2층
문의 : 010)4611-3221

근하신년
퓨리탄 장로회 한국총회
퓨리탄 신학대학 대학원
총회장

총장 서영웅 목사(박사)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08-1번지 대지빌딩 6층
☎ 042) 253-7337. 010)6503-3022

근하신년
퓨리탄 신학대학 대학원
서울 캠퍼스
노회장

학장 서화평 목사(박사)
서울시 중랑구 묵1동 156-2 (열린축복교회)
02) 979-0675, 011)9409-9115

새해 메시지

자정능력으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지도자들의 불신앙적인 언행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중대한 책임을 추궁받고 있다. 교회연합기관사이의 상호 비방은 그 도를 넘은지가 오래이다. 일부 목회자들의 안하무인의 목회세습, 각 교단 내부의 갈등과 분열, 재정과 성추문, 남발되는 목사안수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가슴에 멈출 수 없는 애통의 샘이 터지게 하였다.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십자가정신으로 목회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을 이야기하기 전에 목회현장의 교우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 모범의 지도력으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세속의 지도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윤리성으로 표현되는 영적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 곧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 주신 제자도(discipleship)의 중심에 서야 한다.

성도들에게 나이와 신앙성숙도에 따른 신앙훈련 커리큐럼을 제공하여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 체질화된 봉사자, 치열한 복음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다음세대(Next Generation)를 얻도록 각 교단과 지역교회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시온의 대로를 열 듯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들을 살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내우외환의 중심에 서 있지만 주님편에 서기를 결단하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면 영적 반전의 기회를 잡을수 있으리라. 주님과 성도 그리고 국민은 화려하게 포장된 한국교회의 말을 더 이상 알아보려하지 않는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진정성을 한국교회에 요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새해는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또 한번의 선물로 주어진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오정호 목사
미래목회포럼대표

구로경찰서 "기쁨으로 오신 영광의 주"

서울 구로구 구로경찰서 교경협의회(경목교경회장 김문겸 목사)는 성탄절 전날 12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구로구 구로2동 구로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기쁨으로 오신 영광의 주"라는 주제로 성탄절 감사예배 및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이날 부회장 조종환 목사의 인도로 성탄절 감사예배가 시작되어 부총무 남경희 목사가 기도를, 최성규 집사(구로경찰서 신우회장)의 성경(마2:1~12절)봉독이 있은 후 구로지구여선교회찬양대, 성종중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이어 최순길 목사(지도위원)는 "누가 참 왕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헌금을 위하여 정 철 목사(회계)가 기도했다.

아울러 구로경찰서 서장 유진형 총경(고문)은 인사를 통해서 '김문겸 경목회장을 비롯해 많은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이 협력해 주셔서 경찰선교에 적극 협력해 주신대 대해 감사' 했다.

그러면서 유 경찰서장은 김수정 목사(경목실장)를 높이 치하하면서 뜻을 같이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치장 수감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화운동에 힘써 주었으며, 아울러 경찰선교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유 서장은 주민들의 안녕과 치안을 감당하는 구로경찰의 안전을 위해 끊이 없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하면서 구로경찰서는 서울청으로부터 2012 최우수상을 받는 등 7년 연속 수상을 안은 경찰서이다.

구로구 구로경찰서 유 서장은 지난 10월 25일 제25대 구로경찰서장으로 부임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녕과 치안을 감당하며, 침해노인 찾아주기, 미아아동 찾아주기, 실종자 찾아주기, 응급환자 구호, 자살기도 예방 등을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목회장 김문겸 목사는 인사에서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는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이 많지만,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일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시길 기원했다. 성탄절하면 교회적으로 성도들도 참 바쁘다. 하지만 경찰서 선교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예배에 많은 이들이 참석해 주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직전회장 이춘복 목사(남현교회)가 축사를 전하고, 부회장 이성용 목사는 기쁜 성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구로경찰서 복음화 및 교경협의회를 위하여 기도했다. 아울러 직전회장 이춘복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근혜 정권, 남북문제 기본원칙과 틀

북의 남침 테러 반성과 사과 없는 대화는 않는 것만 못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모든 문제는 근세사 및 건국에 대한 기본인식,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태도,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남북관계의 출발점을 제헌헌법에 명시 된 바와 같이 "기미(己未)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건립(建立)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서 출범한 나라가 역사적 정통을 기반으로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호(國號)는 열강의 각축장이 된 조선왕조가 1897년 10월 11일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정하고 국왕을 황제로 칭한 칭제건원(稱帝建元)을 거쳐 일제침탈로 국권을 상실한지 10년여,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운동을 계기로 높아진 조국독립에 대한 열망을 담아 1919년 9월 15일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수립한데에서 연원(淵源)을 두고 있다.

1919년 9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래,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호와 함께 태극기(太極旗)와 애국가를 계승하고 무궁화와 수도 서울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국가적 정체성(正體性)의 표상(表象)이자 역사적 정통성(正統性)의 증거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가 뜻하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은 고려연방과 한반도기 같은 사술(詐術)에 넘어가 추호라도 손상(損傷)되거나 폄훼(貶毁)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불가협불가양(不可協不可讓)의 성역(聖域)으로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식이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버젓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데 있다."라고 적화통일노선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조선 해방'을 위해 6.25남침과 휴전이후 4만 여 건의 도발을 자행한 전범집단 국제테러범에 의해 2,300만 동포가 굶어죽고 맞아 죽는 수용소군도라는 사실이다.

이런 북한과의 관계에서 기본적 고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합치되는가 여부와 국가목표 및 국가이익에 부합하느냐가 최우선 고려요소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와 인권문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돼야 한다.

북한은 타도 소멸해야 할 3대 세습살인 폭압독재 악(惡)의 집단이란 측면과 해방시켜야 할 2,300만 피압박 노예군단이라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남북관계는 적(敵)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헌법적 책무에서 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에 충분한 남침도발 정쟁 억지력과 국가안보태세강화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굳건한 안보태세 위에 남침전범테러집단을 평화와 공존의 대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남북대화 일 것이다. 예컨대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이 됐건 인질범과 접촉이 필요하듯 2,300만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적이 강점해 온 휴전선 이북의 국토를 수복하며,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통치 군림하고 있는 전범집단 수괴와도 대화와 통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교류와 지원(협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화에 앞서 ▲북한은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집단이다 ▲북한에는 유일체제맹종세력만 있을 뿐 강경파도 온건파도 존재 할 수 없다. ▲북한은 상생적(相生的)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타승(打勝)을 노리는 담판(談判)에 집착한다. ▲어떠한 합의나 약속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 ▲북한은 수령과 당의 교시 및 규약, 혁명노선과 투쟁지령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치 않고 시인이나 사과도 않는다는 것이 그들이 갖는 생태적 특성이란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남북문제 최대의 현안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 정권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생명줄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개혁개방 역시 3대 세습 독재체제유지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핵을 포기하거나 개혁개방을 택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는 생산적인 변화추구보다는 위기관리와 현상유지 차원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감상적 동기나 낙관적 희망을 앞세운 남북대화는 의미가 없다. 설상가상이랄까 정권초기 현상으로 김대중 이래 대북 및 대공분야 전문가가 씨가 마른 상황에서 김일성 선집과 노동신문 쪼가리나 베끼면서 '전문가' 행세를 해 온 이종석 류의 아마추어들이 성급한 성과주의나 근거 없는 낙관적 접근은 남북대화 자체가 "아니 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서두르거나 쫓기듯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며,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쪽은 북한이다.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속담처럼 대화가 절실한 쪽에서 진정성(眞正性)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도록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어 놓되 대화를 위한 무익한 대화는 자제하는 폐문불쇄(閉門不鎖)정책이 바람직하다.

대화에 임할 때에는 엄선된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서 ▲침략 및 도발에 대한 시인사과 재발방지 선결 ▲선행된 약속이행을 전제로 ▲성실신의에 입각한 상호신뢰 ▲너절한 통일전선 위장기구가 아닌 당국자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동 대 행동원칙 ▲선 행동 후 보상 ▲지원물자 분배 및 사용의 투명성 원칙 이의 엄격한 이행 보장을 대화의 필수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남북대화는 한반도 정세안정과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통일시까지 잠정적으로 공존 공영하는 데에 필요충분한 조건 마련을 위해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따라서 7.4공동성명에서 남북합의서와 6.15 및 10.4선언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 성패요인을 엄밀하게 따져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목표와 국익에 반하는 것은 가차 없이 폐기하여 건강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

기존 합의사항 중 7.4공동성명 제 1항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혼란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해석과 사용에 대한 합의 각서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남북합의서 역시 서문에 포함 된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회담대표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일치된 재해석이 필요하다.

6.15선언의 경우 김정일이 서울 답방약속 위반과 핵실험 강행으로 무효가 되기는 했지만, 제2항 연방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10.4선언은 원인무효가 된 6.15선언을 재확인한 제1항과, 일방적인 국보법폐지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삭제 등 법률적제도적정비를 약속한 제2항 및 서해공동어로수역지정, 평화수역설정이라는 속임수로 NLL무력화를 획책한 제 3항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인식에서 남북관계가 새 출발해야 한다.

남침전범국제테러집단 수괴 김정은이 소위 신년연설(2013.1.1)에서 6.15와 10.4합의 이행을 들먹였다. 현시점에 김정은이 할 말은 합의이행 따위가 아니라 6.25남침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사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에 대한 직접적인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성적 태도와 합리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는 한 어떤 관계개선 모색이나 대화 시도도 무의미 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막무가내 식 일방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선을 긋고 상투적인 떼쓰기와 남한의 일방적인 퍼주기 관행에 제동장치를 마련함으로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룰을 제시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기조는 차기정권이 승계 계속 유지돼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남북관계도 이러한 전제와 고려를 벗어나거나 도외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남북관계 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학장 정기환 목사(D.Ed., Th.D.)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신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학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단법인 기독학술원 이사장 ◈세계원주민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기독교지도협회 총재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1:17)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과정	학과	기간	자격	비고
학부	신학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술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입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濠)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맹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t Bochum
임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 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 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육)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大學校大學院
박증혜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우금 교수(MBTI) : (Ph.D)이화여자 대학교, 피어선신학 대학원 대학교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다니엘서 프롤로그 (3)

다니엘이 채식을 원하는 것은 오늘 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나의 양식으로 삼는 자가 된다면 다니엘이 채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물은 뭐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고 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생수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마르지 않는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서 주시는 피도 주님이 주시는 물이다. 그리스도의 피 도 생수다. 희생제물인 소나 양의 피는 일시적으로 육체를 정결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다.

영원 속죄구원을 말한다. 사망권세아래서 목마른 죄인에게 예수그리스도의 피는 영원 속죄구원의 영생수이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도 생수다.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주는 진리의 생수를 먹는 그런 중심으로 물을 원한 것이다. 오늘 날로 치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수가 되는 것이다.

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열매 맺어서 열매 맺은 대로 하늘나라에서 내게 그것을 상으로 주시고, 그것을 내게 영광으로 입혀서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한다면 그런 기쁨으로 산다면 자기 마음속이 천국이다. 영원히,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 내속에 가득하다면, 그런 진리의 생수 같은 하늘에 속한 기쁨, 희락, 평강, 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하면 즉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진 것이다.

영원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평안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채식과 물을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반드시 그들 속이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이 주는 생수는 어떤가? 영원한 기쁨이다. 영생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것이다. 그것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포도주는 먹으면 기쁜가 안 기쁜가? 그것을 먹으면 기쁨이 있다. 포도주에 취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왕이 주는 포도주는 깨면은 끝이다. 왕이 주는 포도주는 잠깐 동안 세상에 속한 기쁨으로 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생수는 어떤가? 영원한 기쁨이다. 영생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은가?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은가?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다. 이제 답이 나왔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채소, 즉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삶는 것과 또 생수의 물 즉 하늘에 속한 기쁨, 내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진리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다. 이런 기쁨을 갖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물을 먹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처럼 물을 먹는 것이다.

왕이 주는 진미가 율법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 먹겠다고 거부하고, 대신 씨가진 채소를 먹겠다고 했다. 그리고 포도주는 잠시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진정한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주는 진리의 생수를 먹는 그런 중심으로 물을 원한 것이다. 오늘 날로 치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수가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주시는 복으로 열흘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이 강건해 진 것이다. 그러므로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었을 지라도 육은 자동적으로 강건하고 아름답게 된 것이다.

(4)열흘 후에 당신의 처분대로 하소서 (13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채식과 물을 먹는 것을 다니엘이 바라는 것이다. 다니엘은 멜살과 얘기할 때 믿음으로 받아 가지고 있다. 다니엘이 열흘이 되기 전에 이미 실상으로 응답을 받아 가지고 있다. 믿음이 선재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다니엘의 믿음은 이미 순교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러므로 노예 신분으로 왕명을 목숨 걸고 거부하지 않는가?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요. 곧 순교신앙을 말한다. '열흘 후에 당신의 처분대로 하소서' 이것은 이미 물과 채식을 구하는 때에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5)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찌게 보였다 (15절)

이것은 일반적인 이치로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임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이 강건해 진 것이다. 육신 몸은 영의 그릇에 불과하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영이 강건하고 그러하니 육신은 자동적으로 강건하고 아름답고 살찌게 보인다. 그래서 은혜의 살을 찌운 것이다. 은혜로 윤택과 아름다움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성을 초원하고 이치를 초월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반이성은 아니다. 이치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에 반하지도 않고 윤리 도덕에 반하지는 않지만 과학에 매이지 않고 과학을 초월하고 윤리도덕에 매이지 않고 윤리도덕을 초월하고 초 이치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앞으로 환란 날에는 1260일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린다고 하셨다 (계11:3). 그러니 기근이 극심할 것이요 더욱더 어려운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으면 짐승 표 666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무엇 하나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게 된다. 영력으로 살고 육체의 체력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게 환란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환란 날에는 주님에 의해서 승리하게하고 순교도 하게하고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한다.

다니엘 2장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의 치리 제 2년에 꿈을 꾸었다. 그의 꿈은 사사로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을 알게 하는 꿈이다. 그러나 그 꿈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잊어먹게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담은 꿈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만 드러내시려는 주의 뜻에 기인한 것이다.

1장에서 다니엘이 채식과 물로써 신앙정절을 지키면서 2년이 지나고 다 끝날 때쯤 되어서, 1장 17절에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닫더라 했다. 그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어떤 꿈이라도 어떤 환상이라도 다 깨닫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느브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으나 잊어버리게 하셨고, 다니엘로 꿈들을 깨닫게 하셨다. 다 때도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것이다.

(1)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알려 주겠다고 함(16절)

왕이 꿈을 꾸었으나 잊었으므로 번민하게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하여 바벨론 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렀으나 허사였다. 그들은 그 꿈 내용도 해석도 알 수도 풀 수도 없었다. 느브갓네살 왕은 심히 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죽이라고 명했으므로 아리옥이 다니엘과 세친구도 죽이려고 찾았다.

다니엘이 왕의 경호 대장 아리옥에게 지혜롭게 말하여 왕의 면전에 서게 되었고 그 꿈의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겠다고 고했다.

다음호에 계속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웨신대한노회장
본지 상임이사

칼 럼 푸리탄 장로교회 목사 서 영웅(JTN방송 상임이사)



푸른 초장으로

새해의 붉은 태양은 떠올랐다. 모두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을 하였다. 변화의 시대를 맞아 여성대통령이 선출되어 국민들은 앞으로 정치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치는 신뢰와 협력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대통령 혼자만의 권력이 아니며 국민모두의 힘인 것이다.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자녀들의 부축을 받아 투표장에서 투표하는 한 사람 한사람의 주권이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것인가! 그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다.

정치권력은 국민 모두의 힘이기에 남용된다면 국가는 혼란과 파멸로 좌초하게 되는 것이다. 다윗왕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왕이었다. 그가 왕권을 가지고 용사들에게"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적과의 치열한 전쟁 중에서 용사들에게 한 말이다. 세 용사가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적진에 들어가 적과 충돌하면서 우물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와 다윗 왕에게 드린 것이다.

그로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결단코 이런일을 하지 아니 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는 말씀이다.

만일 다윗이 회개치 아니하고 왕권을 남용하여 그 물을 마셨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통치자는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조선왕조시대부터 오늘까지 한국역사상 처음 기록되는 여성대통령으로서, 주변에 명철하고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을 인선하여 철저한 국방은 물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좌파세력들을 철저히 차단해 발전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치자는 양들을 위해 푸른 초장을 만들어 양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양무리 앞에서 목자가 걸어가면 양들은 따라가는 것이다. 목자가 앞서지 않고 양의 뒤에서 채찍을 휘두른다면 양들은 흩어지는 것이다.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또한 성장도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것도 아니다. 오랜시간을 두고 비, 바람, 눈, 서리를 맞으며 자라는 것이다. 결실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해충은 쉬지 않고 결실을 방해하며, 좌익세력들을 확산시켜 국정 파탄을 위한 사회혼란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새 정부는 그들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살충제로 제거시켜 발전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2년 전 천안 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응한번 하지 못하고 당한 것은 국민모두의 부끄러움인 것이다. 죽음을 당한 젊은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한없는 국민적 애도가 있을 뿐이다.

북한 공산당은 좌파 정치세력들을 동원하여, 어려운 북한주민을 도와주자는 명목으로 수조원의 국가 재정을 보내준 것이다. 북한은 그것으로 모든 전쟁 준비를 완료했으며, 최근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여 힘을 과시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좌경화된 통치자로 인해 국가는 순간적인 그들이 말하는 불바다가 될 상황이다.

새 시대 새로운 여성대통령은 나약함이 아닌 강력한 통치자로서 국민의 열망을 받아야 하며, 세계 어느 나라의 국방에 뒤지지 않는 국방국가로 신속을 기하여야한다. 지난해 12월 대선은 좌파와의 대결에서 국민적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모든 국민에게 심어주고, 젊은 세대들에게 사상적 대결에서 승리하도록 교육하여, 다시는 공산세력을 지향하는 좌파들을 정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새로운 여성 대통령으로서 가장 힘있는 국가를 만들어, 국민들을 푸른초장으로 이끌어가는 새 역사의 통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예화) 회개

어느 목사의 딸이 안 믿는 남자와 연애를 했다. 아버지 되는 목사는 눈물로 극구 말리는데도 그 딸은 듣지 않고 기어이 자신의 뜻대로 결혼을 하고 말았다. 그 후 10여 년 동안 그녀 자신 마음대로 살았다. 물론 교회도 다니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그녀의 외아들이 병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끝끝내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았다. 결국 그 아들이 죽자 그녀는 그제서야 교회를 찾아가서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목사님께 하소연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뿐인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을 했다. 자기가 목회자의 자녀라는 사실도 고백하면서 갖은 넋두리로 원망을 늘어놓았다. 듣다못해 목사님이 한마디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그 정도 얻어터져야 10년만에라도 교회에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웬만하면 좋은 말로 위로하고 싶었는데 줄곧 못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보고 신중하게 꾸짖었다고 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는 당신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신 것이다. 당신을 부르시려고 이 사건이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깨우쳐주려 한 것이다. 그 여인은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였다고 한다.

(곽선희/이적으로 계시된 말씀)

근하신년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원장 :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근하신년
개신대학원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살리는 신학과 살아있는 목회자와 사회복지를 위한 전문인 양성과정』 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학위과정 (월요반, 화,수요반, 토요반)
■학위과정 : 국내학사(신학, 사회복지학), 석사(신학, 목회학, 코칭학, 사회복지사) 박사(사회복지학, 코칭학, 목회학, 신학박사), 기타학위과정
■자세한 문의 : 담당 곽 동 훈 박사 (010-7405-9191)

근하신년
사랑.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혜망원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근하신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로운교회 HYANGGIROUN CHURCH
표어 이 전의 더 큰 영광을 보리라(학2:7)
담임목사 정일량 유성은
섬기는 분들
전임전도사 : 이귀선(샤론) 전도사 : 헵시바
선교사 : 전승주, 손호자(태국치앙마이)
장로 : 최문호 . 유봉철
안수집사 : 손경현. 배하성, 정대봉
성가대장 : 정대봉
성가지휘 : 이용경
피아노 : 배민지 신디 : 김인영
드럼 : 유혜란 김효정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09:30
2부 찬양예배 오후 1:30 청년1,2팀예배 오전 09:30
사랑 애찬 교제의시간 주일학교예배 오전 09:30
수요기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목
영락원예배 오전 9:00 1일월삭 예배 오전 05:00
목요치유예배 오후 7:30 1기 제자교육 월화금요반
홈페이지 http://hgioun.onmam.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2-1 향기로운빌딩 9층
☎ 032)814-7720, 팩스 032)714-3131, 010)4274-3330

근하신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롬방
		2회 오전 11시 30분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센터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영어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은 딤후 3:16절에서 성경기록의 근원과 그 내용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로 번역을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서에서는 기독교 근본이 되는 교리를 교훈으로 번역하여 참된 진리에 이르기를 구하기보다는 교단의 교리에 억메어 자신들의 교리에 어긋나면 성경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있어 이단으로 정죄하기에만 매진을 하고 있다. 성경의 영감론에 오류를 범하므로 이단 교과서라는 오명도 얻게 된 것이다. 영감(Inspiration)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로 신약성경에 성경을 기록할 때 단 한 번만 사용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하나님' 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이란 두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God-beathed)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었다' 는 뜻이 곧 영감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영감' (nspiration of God) '성령님의 감동' 프뉴마토스 하기우 페로메노이 ; the Holy Ghost moved)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성경을 기록할 때 단 1회적으로만 사용되었으나(딤후 3:16) 후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말할 때(벧전 1:21) 사용된 단어이다. 이 낱말은 신약성경에 66회 나타난다.

'감동' (페로메노이)은 '페로'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낱말로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 또는 '짐을 지고 가는 것' 을 뜻한다(행 27:15, 17, 벧전 1:21).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감' 과 '하나님의 감동' 은 전혀 다른 뜻이다.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원어신약성경을 본문)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계열(개역성경, 개역 개정판성경)을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본다.

1. 성경론

1)마 4:4;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신 8:3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눅 4:4절에서는 개역,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삭제되었다.

(원어신약성경)눅 4:4; 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 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개역)눅 4:4;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개역개정)눅 4:4;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2)벧전 2:2; "순수한 말씀의 젖" 을 '신령한 젖' 으로 변개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은 첨가 시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신앙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므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노아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서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들도 이 같은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원어신약성경)벧전 2:2;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개역)벧전 2:2;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개역개정)벧전 2:2;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성장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통해서만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려면 신령한 젖으로 이른다고 하였다. 신령의 사전적 의미는 '통속적으로 섬기는 신' 이란 뜻이다.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의 성장을 신령이란 단어를 쓰므로 세상의 종교와 같이 기복주의와 바벨화 된 신앙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3)롬 10:17절은 '하나님의 말씀' 과 '그리스도의 말씀' 을 혼동 시켰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혼동 시켰다. (원어신약성경)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개역)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개역개정)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4)롬 14: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과 '하나님의 심판석' 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같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은 상급심판석으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곳에서 10고을 혹은 5고을 혹은 2고을 받아서 1000년 동안 예수그리스도와 통치하는 통치권을 받는 심판석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선수가 상을 받기위해서 서는 시상대 단어이다. 하나님의 심판석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이다. 이 심판 때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는 다시는 죄들과 불법들과 범법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가느냐 영원한 멸망을 가느냐를 심판하는 흰 왕좌(백보좌)심판석이 하나님의 심판석이다.

다음호에 계속

김수정 원장
JTNTV 방송
JT타임즈 운영이사
H.P 010-7520-7651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계열(원어신약성경)과 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서계열(개역, 개역개정 성경)

황성주 박사의 건강학

기도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한다! (45)

상처를 고치려면 먼저 내가『상처투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와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롬 8 : 26)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개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얼마 전 한 청년이 여의도광장에서 차를 몰아 끔찍한 살상을 초래한 사건을 해석할 때 간과하기 쉬운 점이 여기에 있다. 이 청년은 가해자이기 이전에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 청년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만 사회의 냉대 속에 그 청년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직장마다 쫓겨나는 청년의 설움과 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병든 부위가 곪으면 터지듯이 쌓인 상처는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게 마련이다. 이 불쌍한 청년에게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나 자신이 남에게 상처준 일이 없는가를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무의 나이테는 단순히 연륜의 표시만은 아니다. 유능한 식물학자는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나무의 나이는 물론 나무의 성장과정에 있었던 많은 사건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내면세계에는 과거의 온갖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나이테가 있다. 우리의 생각과 정서의 필름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픈 상처와 불행했던 과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도 그 기억들은 살아 움직인다. 또한 그것들은 현재 나의 사고와 정서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모든 대인관계의 영역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특히 인격적인 모독이나 자존심의 심한 손상, 쓰라린 추억 등은 망각에 의해 쉽게 처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그 때와 동일한 상황이 조성되면 옛날의 감정과 반응이 재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마다 상처받은 감정과 쓰라린 추억이 되살아나는 고통을 맛보게 된다. 상한 감정의 특성은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의식, 항상 애쓰고 힘쓰나 만족하지 못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완전주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상처를 쉽게 받는 예민성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무마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예사로 행하기도 한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언행에 있어서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없다. 이들은 아픈 상처를 모면하기 위해 강인함과 날카로움으로 자신을 위장하기 때문이다.

상처를 고치려면 먼저 내가『상처투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도 가해자였음을 시인해야 한다. 나에게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통찰력이 없는 한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는다.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의사에게 치료받으러 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스스로 정상인이라고 치부하는 한 병든 부분을 고칠 기회는 오지 않는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위로도 보상도 통하지 않는다. 설사 이들이 극심한 어려움 끝에 성공했다 해도 그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들보다『더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만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온전히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히 4 : 15, 16).

이러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기도는『관념적인 기도』가 아닌『상한 감정 속에 녹아 들어가는 기도』를 의미한다. 그러려면 쓰라린 추억에 과감하게 직면해야 한다. 즉 자신이 상처를 받았던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 원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라. 그런 다음 자신에게도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 처절하게 상한 감정을 경험하신 예수님(마 26, 27장)을 바라보라. 스 순간 나의 모든 상처는 그분의 것이 되고 주님의 평강은 나의 것이 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킬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까지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치유의 기도를 통해 상한 마음을 치료받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 기도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상처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최대의 뉴스거리가 아닐까.

황성주 박사
"성경 건강학" 중에서



황성주 박사

(칼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3가지 이유

1. 영적인 세계를 보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2.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3.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려 오셨습니다. 4.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밝히시려고 오셨습니다. 5.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6.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7.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8. 예수님께서는 왕도를 보여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9. 세상을 화목케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10.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1.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2.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3.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14.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5.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16.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7.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철학과 종교를 폐하려 오셨습니다. 18.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9.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20.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21.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여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22.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23.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소망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3년의 사역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W.C.C 를 배격하는 7대 이유<4>

미국 내의 W.C.C 가입한 연합장로교회는 10년간 약100만 명의 신도 잃어

WCC는 큰 창녀 바벨론이다. "내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도 받지 말라"(계18:4)

〈지난호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W.C.C가 소련사람들의 협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련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련대표단이 W.C.C에 머물러 있기로 한 밀약을 W.C.C가 기꺼이 지켜나고 있다는 말인가?"하여간 W.C.C가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소련이 W.C.C에 계속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W.C.C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1961년 W.C.C가 소련인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소련정교회를 끌어들이려는 오랜 협상에 간여했다가 실패한 서독의 지도적인 신학자 마르틴 니뮐러는 마침내 이렇게 반문한 일이 있다.

"그곳(소련)에 과연 진짜 교회가 있단 말인가? 아니면 위장된 선전기관만이 있는 것인지? 러시아교회라는 것은 스탈린을 먼저 섬기자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먼저 섬기자는 것인가? 여하튼 여러 해를 질질 끌어 오다가 키렘린은 러시아 교회의 W.C.C가입을 허가했는데 그때로 말하면 공교롭게도 흐루시초프의 소련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그 절정에 달한 때였다. 실로 흐루시초프의 기독교 탄압은 소련사상 최악의 하나로서 소련 전역에서 1만 개가 넘는 교회를 강제로 패쇄시켜 버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가 공교롭게도 그때에 소련정교회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실제로는 흐루시초프의 종교탄압행위를 인폐해 주고 그에 대한 외부세계의 항의를 사전에 봉쇄해 버리는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날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것은 흐루시초프의 약삭빠른 꾀에 넘어간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철저한 반성의 필요

오늘날 W.C.C는 점차 심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먼저 항의하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내의 W.C.C 가입 교회 중에서 일인당 헌금액으로 볼 때 W.C.C에 가장 많은 자금지원금을 하고 있던 연합장로교회는 지난 10년 동안에 약 100만 명의 신도를 잃어버렸다.

한 유력한 장로교 평신도는"많은 신도들이 W.C.C에 대해 뿌리 깊은 증오감을 품고 있습니다.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W.C.C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독교신도들이 W.C.C와 같은 기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는 돈도 전반적으로 급격히 떨어져서 현재는 10년 전의 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평신도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이러한 W.C.C에 대한 저항은 차츰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에게서도 공명을 받고 있다.

미국 루터파 신학자인 리처드 존 뉴하우스씨는 이렇게 말한다.

"W.C.C는 이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데 사회적, 정치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교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깨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 W.C.C는 기독교인들간에 과거 교파나 교리문제를 가지고 야기되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날카로운 분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독교네크워크의 지도자인 서독의 페터 바이어 하우스씨는"만약 W.C.C를 그 본래의 참된 사명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냥 해체해 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W.C.C가 그 창립취지와 정신으로 되돌아가 교회통합이라는 원래 목적으로 다시 발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만은 모든 회원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W.C.C 내에 침투된"관료교인"들이 총회의 토의 결과를 미리 정해 버리도록 방치하지 말고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나서야 된다고들 말했다.

세계 기독교인들은 파란곡절 많은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교회인들도 나름대로 현실에 참여함으로써 독특한 증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만약 고통스러운 오늘의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려할진대 그들은 모름지기 칼 마르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본보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리더스 다이제트 1982년 10월호 -

그림 들어감

● 순교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카톨릭에 대한 증언

❶ 이베르하르트(Eber ehard)2세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urg, 1200-1246)의 대주교로 다니엘 7장에 나온 뿔이 바로 교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마 교황을 양 우리에 들어온 한 마리 이리로 보았고 교황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했다. 이베르하르트 대주교는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나타날 정체불명의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로마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등장한 로마 교황청으로 보았는데, 로마 교황청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해 언급하는 성경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❷ 존 팍스(John Foxe)는 [팍스 순교서]라는 책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이 책은 1331년과 1360년 사이에 많은 학자들이 로마 교황의 거짓 교리에 대항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과 여러가지 내용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순교자들 중 한 사람인 케세나(Cesena)출신의 미쉘(MICHAEL)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따랐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로마 카톨릭을 성도들의 피에 흠뻑 취한 바빌론의 음녀(창녀)라고 선언한 죄목으로 순교 당했다.

❸ 존 위클리프(John Wyclif)는 영국의 종교 개혁자로 다니엘서에 나온 작은 뿔이 바로 로마제국에서 생겨난 로마 교황청이라고 주장했다. 왜 로마교황청을 적그리스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손기태 박사
AVA 아카데미,
마라나다 한빛교회
담임목사
JTNTV방송,
본지 상임고문



"전년도 1월 14일 현재 신천지 재산 495억"

사이비 종교집단'신천지'의 실체와 대처방안

본 글은 한국기독교사연구소(소장 박용규 교수)가 2012년 11월 26일 서울 잠원동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개최한 '한국교회 이단사이비운동 비평심포지엄' 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과거 신천지 서열상 이만희 교주 바로 아래 7교육장 중 한명이었던 신현욱 소장은 자신의 이력에 걸맞게 신천지의 뿌리에서부터 조직, 최근현황, 핵심교리와 반증, 비유풀이의 예, 포교전략, 미혹원인과 대처방안까지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되리라 기대하면서 〈편집 자주〉

들어가는 말 /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위기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예전의 한국교회가 아니다. 전도는 어려워져 교회성장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이고 신앙의 열기는 식었다. 그간의 급성장 속에서 일었던 거품이 제거되면서 잠복 되어 있던 다양한 병리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이제는 교회 내의 성도들조차 개혁에 목말라 하다가 교회에 등을 돌리고 떠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한국교회의 병약한 틈을 타서 안티기독교세력은 교회의 전도문을 앞에서 막고 있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을 비롯한 이단 사이비 종교집단들은 기승을 부리며 교회 뒷문을 열고 양들을 노략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영적 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복음 이단사설들이 확산되어 미혹된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고 하듯 이제라도 저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수년 간 한국교회는 각종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간교한 포교방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경계가 요구된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일찍이 신천지에 대해 이단규정만 했을 뿐(통합/1995/이단, 합동/1995/신학적 비판 가치 없는 집단, 고신/2005/이단, 기성/1999/이단 등)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그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약 20여 년간 신천지 최고위직에 몸담았던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과 교회 파수의 최선봉에 서 계신 많은 목회자들에게 신천지의 실체와 함께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장·단기별, 기관별 예방과 대처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신천지의 실체

1) 신천지 교리의 뿌리

① 이만희 교주 신앙 전력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1931년 7월 13일(음) 경북 청도군 풍각면 현리 702번지에서 태어났다. 17세 때에 믿음 없이 외국 침례교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 후 고향에서 잠시 장로교 신앙을 했다. 그 후 자칭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사실은 가족력인 한센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당시 생수로 신유의 능력을 베푼다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던 박태선의 전도관에 입교하였고, 소사 신앙촌에서 벽돌 굽는 기술을 배워 역군으로 10여 년간을 봉사하게 된다.

그곳에서 다시 전도관 탈퇴자들을 중심으로 수 백 세대가 이주하면서 집단 취락을 형성한 과천 막계리 소재 세칭 어린종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67년 입교하여 시한부 종말설이 불발된 69년 11월 경 탈퇴하였다. 그 후에도 잠시 통일교의 영향을 받았던 실로를 자칭했던 목영득을 추종하였다가 70년대 초 고향인 청도로 낙향한다. 이후 78년 가을 장막성전의 일곱 천사 중 하나였던 자칭 하나님 백만봉의 재창조교회에 입교하여 12사도 중 하나로 있다가 1980년 3월 13일 시한부 종말설이 불발되자 이튿날인 1980년 3월 14일 안양 인덕원 소재 이만희 사택에서 몇 명의 탈퇴자들과 함께 첫 예배로 모인 것이 신천지의 시작이었다.

② 교리의 뿌리

한마디로 신천지 교리는 이만희 교주의 신앙 전력에서 그 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추종하며 전전했던 기존의 선배 교주들의 교리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수정 보완한 여러 이단 교리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박태선 전도관의 {동방, 이긴자, 천년왕국, 두증인, 두 감람나무, 신인합일 육체영생}, 유재열 장막성전의 {비유풀이=말씀의 짝, 성경론, 요한계시록해설}, 백만봉 재창조교회의 {창조와 재창조의 노정 순리}가 있다. 여기에 이만희 교주와 같은 전도관, 장막성전 출신의 구인회(자칭 재림예수)의 실상교리와 김풍일(자칭 실로, 보혜사)의 업그레이드 된 짝 교리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신천지 교리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통일교와 그 아류인 생령교회 강사 출신의 김건남과 김병희 두 사람이다. 이들에 의해 전도관과 장막성전의 교리에 통일교와 생령교회의 교리가 혼합된 〈신탄〉(신천지의 조직신학)과 〈계시록의 진상〉이란 두 권의 책이 출간되면서 신천지 교리의 체계와 골격이 대체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신탄〉이란 책을 통해 7년 동안(1980.9.14.~1987.9.14)에 144,000을 다 채우고 신인합일이 되어 영생불사를 이룬다고 예언했던 시한부가 불발되고 책자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견되면서 1988년부터는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 진상〉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수정해서 〈요한계시록 해설서〉(요한계시록 진상2, 요한계시록 진상3, 요한계시록 완전해설, 계시, 요한계시록 실상1, 요한계시록 실상2, 천지창조, 계시와 주석) 등을 발간하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신현욱 소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



근하신년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담임 정연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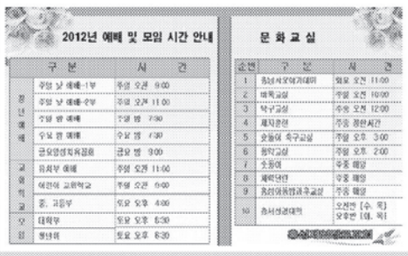
정규예배
주일 전통예배(1부) 오전 9시 (라인보우 아트홀)
주일 현대예배(2부) 오전 11시 (라인보우 비전홀)
주일 청년예배 오후 2시 (라인보우 아트홀)
주일 오후예배 오후 3시 (라인보우 비전홀)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배동홀)
어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교육관)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라인보우 아트홀)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라인보우 아트홀)
수요기도회(1부)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라인보우 아트홀)
수요기도회(2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라인보우 아트홀)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9:00 (라인보우 비전홀)
새가족모임(새주간) 주일 오전 9:30 (새가족실)
경로교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라인보우 아트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근하신년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오종설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근하신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오전 9:00	4층 나사렛성전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대예배실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2:0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대예배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4층 나사렛성전
	주 일 오후3:30				
청년부	토 요 일 오후5:00	4층 나사렛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셀 예배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10:00,오후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각 셀 예배	셀 가정별			



담임 이 선 목사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근하신년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근하신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빛중앙교회
SEBIT CENTRAL PRESBYTERIAN CHURCH



담임 지태일 목사

표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기는 교회! (요16:11)

<예배 시간 모임 안내>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본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 7:30 본당
청 년 부 오후 1:20
금요 기도회 (금)오후 9:00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 치 부 주일 오전 11:00
구 역 예 배 (금) 구역별
새벽 기도회 (주일~금) 오전 5:00)

446-9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298-17
☎ 031) 284-3927, 3926, www.sebit.or.kr

근하신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신 천 교 회

신천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예배	1부:09:00 (오전) / 2부: 11:00 (오전)
주일오후 예배	02:30 (오후)
삼일기도회	07:30 (오후)
새벽기도회	월~금 05:30 (오전) / 토 06:20 (오전)
부서별기도회	금요일 09:00 (오후)
새가족	12:30 (낮)
청년부	02:00 (오후)
청소년부	11:00 (오전)
초등부(1~6학년)	09:00 (오전)
유치부(6~7세)	11:00 (오전)
영아부(3~5세)	11:00 (오전)



담임 이재성 목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동 1612-7
☎ 02)859-3671 FAX 02)859-3673

근하신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 주안에서 굳게서는 교회(살전 3:8)

◈ 예배와 교육안내 ◈



담임 유영섭 목사

예배	· 주일 낮 예배: 1부/오전9시 2부/오전11시 · 새벽기도회: 새벽 5시 ·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50분 · 구역 예배: 각구역별로 ·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 수요기도회: 오후 9시
주일 학교	· 유 치 부: 유치부실(지상1층)오전11시 · 청소년부:청소년부(지하2층)오전9시 · 아 동 부: 아동부실(지하1층)오전9시 · 영 아 부: 오전 10시30분(1층 영아부실)
장신도 교육	· 새 가 족: 주일 오전10시20분 · 성경연구: 화요일 오후8시 · 성경일독: 아동부실 주일 오후 1시 · 베일성경: 목요일 오전10시,오후8시

(445-380)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근하신년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특별세미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할인

♣ 참석자 전원에게 "언약의 무리」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견용)

가정예배

2013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원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사도바울은 빌리보 교인들에게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주시는 사랑은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 위함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 감사로 시작되는 삶

말씀: 빌립보서 1장 1-3절 찬송 28장

본문 3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 감사와 간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사도바울의 삶 속에서 감사가 생활습관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가정

말씀: 빌립보서 1장 4절-5절 찬송 219장

빌립보 교회는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복음이 확산되는 교제였고 자발적인 교제였으면 일시적인 교제가 아닌 지속적인 교제였습니다. 오늘날 교제가 없는 현대의 가정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7절 찬송 287장

본문 6절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고 사도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바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정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 진실한 사랑을 하십시오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11절 찬송 411장

5. 매임으로 나타난 역사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18절 찬송 449장

사도바울은 자기의 매임으로 인하여 시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은 로마에서 핍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매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매임으로 인하여 삶이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향한 열정만은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21절 찬송 348장

사도바울은 지금 재판의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그는 담대하였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담대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으로 동행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26절 찬송 378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한 난관에서 초조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생사의 문제를 완전히 초월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어느 쪽이든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확신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30절 찬송 455장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능합니다. 먼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언어와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이것은 성도됨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 한 마음을 품읍시다.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3절 찬송 301장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 됨의 생활은 권면과 위로와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며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호간에 아름다운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 그리스도의 마음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8절 찬송 455장

바울은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포용할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의 정심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그리스도 자신 또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들의 고통의 짐들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항상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

11. 그리스도의 겸손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11절 찬송 212장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존귀함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철저히 낮아져야 할 것에 대해 예수님은 친히 당신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13절 찬송 321장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는 성화의 생활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13. 빛들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빌립보서 2장 14-18절 찬송 502장

성도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섞여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4. 충성된 일꾼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22절 찬송 502장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동역자였음에는 틀림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장기간의 옥중생활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며 자기를 대신해서 성도들을 돌아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요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요청이 왔을 때 흔쾌히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위한 회복이 필요하다 (딤후1:1~14)

1. 영적인 침체에 빠진 디모데(딤후1:1~14) 1) 영적 침체에 빠진 디모데(딤후 1:6,7) ㄱ) 디모데(Timothy)(행16:1~3) 행 16: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그는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영적 아비와 아들의 관계/ 사역의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롬 16:21)

디모데는 마음 깊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디모데에게! 사도바울은 스승이요/ 아버지요/ 동역자요/ 정말! 태산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 ㄴ) 디모데의 영적 침체(딤후 1:6,7) 딤후 1: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디모데후서는? AD 66-67년 경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바울이 감옥에 2차 투옥 되면서 그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다. 사도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삶이 이제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음을 느끼고 그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와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디모데가 영적인 침체와 두려움으로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사를 다시 회복하라고(6)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라고(7)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라고(8) 디모데는 장차 다가올 고난과 두려움 때문에 바울을 의지했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의 2차 투옥 소식을 듣게 된다. 디모데는 비교적 연소한 청년 목회자였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적 침체기를 맞게 된다. 2) 침체 때는 바울(편지/ 노래)이 필요하다(딤후 1:1,2) ㄱ) 편지(말씀)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라(1:1) 딤후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침체에 빠졌다는 형편을 알게 된 바울은 디모데가 희망의 이정표를 찾도록 메시지를 보낸다. 디모데의 영적 침체는 바울에게 큰 근심을 안겨 주었다. 그래서! 편지(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한다.

A) 먼저! 자신의 사도의 소명을 거론한다. *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B)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C)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 성도여!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이정표를 소개할 때/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쓸 때는? 자신의 소명(부르심)을 먼저 얘기하라.

ㄴ) 그 편지(말씀)를 통하여 디모데를 축복하라(1:2) 딤후 1: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 ...생략...인터넷방송 wwww.jtntv.kr 참조...

결국! 육체가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진다.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살아지지 않을 때/ *원하는 일이 오래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 침체라는 손님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손님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아주 가까운 손님이다.

특히! 기분에 죽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주기가 너무 짧아서 주변을 자주 어렵게 한다. C) 성도여! 새해를/ 오늘을 가장 멋진 날로 만들라, 너라는 단어 속에다 주님/ 부부/ 친구를 넣으라. 이렇게 불러보라! "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주님/ 당신/ 친구)라는 걸 네(주님/ 당신/ 친구)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새해에 우리는 새 땅으로 간다/ 새 시대로 간다/ 가나안 땅/ 구속사의 중심으로 나아간다. 새해를 위한 회복이 필요하다.

참조 www.jtntv.kr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끝까지 볼 수 있다.



지태영 목사
예장순장총회 총회장

근하신년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 세계 주영광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세계 한민족 복음화 부흥사 협의회 실무국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 본사 사무국장
- 예수능력 치유센터 설립 및 원장
- 온누리 선교회 21대 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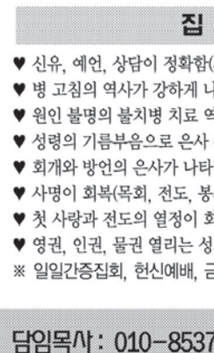
장로 : 신호균

담임목사 이이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 714-1426, 7236

근하신년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 수 영 목사

- 행복샘전인치유센타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기독TV인터넷방송부흥협의회부총재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이 외에도 많은 간증문이 있습니다.

집 회 특 징

♥ 신유, 예언, 상담이 정확함(사 11:2, 요엘 2:28)
♥ 병 고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행 19:11-12)
♥ 원인 불명의 불치병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시 41:3)
♥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은사 접목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 회개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막 16:17-18)
♥ 사명이 회복(목회, 전도, 봉사, 섬김)되는 성회(엡 4:11-12)
♥ 첫 사랑과 전도의 열정이 회복된다(신 6:12)
♥ 영권, 인권, 물권 열리는 성회(대상 4:10)
※ 일일간증집회, 헌신예배, 금요철야기도회, 2박 3일 성회, 교회형편대로

담임목사 : 010-8537-8291 / 교회 : 053) 752-8238

근하신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리교회

표어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담임목사 오 상 렬
(본지 상임이사)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5-1
전화 : 041-564-7004, 041-551-3553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담임 이재갑 목사
웨신총회 총회장
본지 상임이사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는 교회
2. 영혼과 전리가 기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2012 목회 지침
네 장막터를 넓히라 (사54:2)
성령의장막터를 넓히자——은사
영혼구원의 장막터를 넓히자-세계선교
섬김의 장막터를 넓히자 --섬김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자 ——나눔

부목사 : 송승길
장 로 : 박광순, 김혜자
전도사 : 임사랑, 최원희 박에스더
협동전도사 :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7주년을 맞은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발족

jtntv방송 7주년 및 제6차 정기 이사회 열어



지난 21일(금요일) 오전 11시에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2단지 소재 예복교회(사장, 소진우 목사)에서 본사 7주년 감사예배와 2012년도 정기이사회를 연 후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인천지사장, 등불교회)의 진행으로 1부 신문방송 제7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시작되고 곽동훈 목사(강원동해지사장, 행복의집)의 대표기도, 우슬초 목사(운영이사, 추성청각장애인교회)의 특송, 오선연 찬양 선교사의 섹소폰 연주, 이춘복 목사(남현교회)는 고전10:31-33절 본문으로"인생의 목적"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유윤주 목사(운영이사, 지구촌교회)의 봉헌송, 박수영 목사(대구지사장, 행복샘교회)의 봉헌기도, 허식 목사(한국경목총회장)와 이범성 목사(한기보협 대표회장)의 축사, 곽영민 목사(사무국장)의 광고를, 정기남 목사(대표이사)가 7주년을 맞은 신문사 및 JTNTV방송에 대해 그 동안의 운영 과정을 소개하고 인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특별기도에 송미순 목사(운영이사, 하늘샘교회)가"국가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오세승 목사(세주부협 사무처장)가"본사와 전국 및 해외 지사를 위하여",유윤주 목사(운영이사, 지구촌교회)가"한국교회와 회원교회 및 장소를 제공해준 예복교회를 위하여"각각 기도했다.

이어 감사패 및 축하패 전달에서 정기환 목사(이사장, 전원중앙교회)가 소진우 목사(사장, 예복교회), 이춘복 목사(남현교회), 장한국 목사(상임이상, 주사랑교회)등에게 각각 감사패를,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세주부협 대표회장, 등불교회)에게 세주부협 제5대 대표회장 취임 축하패를 전달하고, 이춘복 목사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마쳤다.

이날 이춘복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첫째는 믿음으로 신문방송을 운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하신다"면서"오늘날 이단들은 언론사와 방송매체들을 키웠다"는 말이 있으므로 본방송 신문사는 물질에 타협하지 말고, 권력에 굴복치 말고, 폭력에 약해져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

둘째는 모든 이를 기쁘게 하는 신문사, 이것이 쉽지는 않으나 기독언론은 세상언론과 달라야 한다고 했다. 셋째는 거치는 신문사가 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언론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위기감을 조성해서는 안 되며, 정직하고 깨끗한 언론이 되어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라"는 언론매체가 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후에 열린 2012 제6회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의 사회로 진행되고, 장한국 목사(상임이사, 주사랑교회 담임)의 기도와 안건토의, 부이사장 정대성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설교 이춘복 목사
(남현교회 담임)

이어서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발족식은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발족위원, 세주부협 대표회장, 등불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어 발족위원 김동기 목사(성경통독 전문가)의 대표기도, 예장(합동)부흥사회 소속 권세능 목사의 축사에 이어 사회를 맡은 곽영민 목사(사무국장)는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발족 취지를 설명하고,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소진우 목사(본지 사장)를 부흥사협회 발족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신문사와 JTNTV방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통성기도를 한 후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감사패전달식

한편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발족 취지는 다음과 같다

본지 부흥사회는"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순수 복음 문서사역을 하는 지저스타임즈 문서 홍보 및 후원과 회원간 강단 교류 및 한국 교회와 기도원의 부흥을 도모하는 부흥사회가 되기 위하여 발족되었다.

또한 본지 부흥사회는 초교파 부흥사단체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자세로 2012년 12월 21일 발족되었으며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내외를 순회하며 교회와 기도원을 살리는데 일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부흥사들로 큰 부흥을 이루었듯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의 순전한 부흥사들을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나라 세우는데 열정을 불사르겠다는 신념으로 출발한 부흥사협회이다.

이날 발족된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협회는 발족위원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발족위원 이효은 목사(화정충현교회), 정기남 목사(대표이사), 정기환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허 식 목사(한경총 총회장), 홍항표 목사(한경총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세주부협 대표회장), 김동기 목사,(성경통독 전문박사), 권세능 목사(주천성교회), 곽동훈 목사(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최낙현 목사(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정대성 목사(강남복된교회),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 유윤주 목사(지구촌교회), 박수영 목사(행복샘교회), 송미순 목사(하늘샘교회), 오세승 목사(세주부협 사무처장), 우슬초 목사(추성청각장애인교회) 등 40여 이사진과 목회자들로 뜻을 같이하여 부흥사협회를 발족시켰다. 총재 및 대표회장 모든 조직 분야 임명은 2013년 1월 25일 신년하례에서 있을 예정이다.

사무국장 곽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다락방' 류광수 목사, 한기총서 이단공청회

"한국교회 지도 받고 겸손히 전도에 힘쓰겠다"

예장통합, 예장 합동 등 다수의 교단으로부터 이단 지목을 받고 있는 예장 전도총회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일명 다락방)회장 류광수 목사가 2012. 12월 28일"20여년 이단과 관련한 오해를 풀기 위해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겠다"고 다짐했다. 류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공개공청에 참석해 이대위 위원과 전문위원, 교계 지도자들로부터 다락방 전도운동의 신학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2011년 예장 개혁 총회(총회장 정학채 목사)에 영입된 전도총회는 17개 노회와 820여개 교회, 성도 수가 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도총회는 지난 2011년 6월 개혁 교단 영입 직후 해체했다.

류 목사는 이날 오른 손을 들고 11개 항목의 신앙고백문을 발표했다. 그는"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해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고 선서했다. 또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로 영원토록 존재하심을 믿는다"고 밝혔다. 류 목사는"앞으로 겸허하게 전도운동을 실천하겠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30여년 전도운동을 하게 됐다. 과정에 물의가 있어 걱정을 끼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 작은 힘을 모아 겸손히 전도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고치고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겠다"며"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오해된 부분은 철저히 고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한기총은 2013년 1월 3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리는 24회 정기총회에서 유 목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칼럼]

대선과 성탄의 선물

대선을 마치고 나니 왠지 나라가 조용해지고 안정된 느낌을 갖는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도 그러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싶으니 우리나라의 국민수준이 많이 나아졌다고 사료된다. 김대업, BBk 사건으로 곤욕을 치룬 분도 있고 아예 자리바꿈을 한 분도 있다. 뿐만아니라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돌려 버린 분도, 내각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내 걸었던 분도 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다.

박정희 대통령을 아무리 물고 뜯어도, 독재라고 아무리 소리쳤어도 현재 이 나라의 부강함은 오히려 그들 종북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일류대학을 나와 상류사회의 맥을 짚고 자리잡고 살아가던 이도 대선에 나와 추한 모습만 보이고 가라앉고 말았다. 그래도 가장 진실 되고 가장 청렴한 분이 대통령이 된 것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당선된 분께 바랄것은 교권강화와 공권력강화 국방강화를 이루기를 바라며 사학으로부터 오는 부조리를 억제하기 위해 주장하였던 학교의 선생님 우대와 학교 교육의 우선, 이를 위해 교육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을 초월하여 전 학교의 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종북사상에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전교조를 해체하고, 너무나 풀어진 공권력으로 경찰이 너무나 몸사리며 조심하다보니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미국의 CIA나 FBI와 같은 정권을 초월한 수사기관이 있어야하고, 국방에 있어서는 미국의 허락보다는 우리의 국방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의 의원들의 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 혹은 제도가 필요하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의 경제의 초석을 닦았다 하면 이제는 선진화로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정신적인 것을 선진국화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 방법으로 기독교 교육 방법보다 나은 것은 없다.


칼럼리스트
최순길 목사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대 한 노 회
노회장
장 한 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
(승리교회)
서기
반민규 목사
(백호샬롬교회)
회의록서기
박명자 목사
(도원생수교회)
회계
유윤주 목사
(지구촌교회)
2013년 새해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임원일동 배상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84 대림프라자(고흐7층)
☎ 031) 424-7612, H.P 010)4436-7060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 선교사 : 김경자
• 전도사 : 장성철,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좌파의 정체, 종북의 폭력투쟁본능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국민지지도 0.2%짜리 통합진보당 이정희가 대선 공개 TV토론장에서 대통령에 당선 될 목적으로 출마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를 떨어트리기 위해 나왔다고 표독스러운 광기를 발산할 때, 시청자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정희라는 여성은 수학능력시험 전국수석을 할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차분하고 얌전한 모범생 이었으나, 대학진학 후 주사파에 포섭되어 의식화 되면서 동부연합을 거쳐서 통진당(민노당)후보가 되었다.

국내최고의 서울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 자격까지 가진 인텔리 여성이 극단적인 사상이념에 사로잡혀, 상식수준에서는 이해 안 되는 돌출행동(?)을 하게 된 배경과 소위 종북분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전범집단과 직간접으로 연계 또는 그 영향 아래 있는 국내 종북세력은 "혁명의 최고영도자인 수령(首領)과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노동당'과 남한에 침투한 '지하당'이 추구하는 남조선혁명과 한반도 적화"를 지상목표로 삼는다.

이정희의 적개심과 증오 본능, 종북의 무차별 폭력투쟁 행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세습독재자 스스로를 당과 혁명, 노동계급과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노동계급의 수령'임을 자처하면서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수령은 혁명의 최고영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서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며, 당과 혁명을 백승의 길로 이끌어 온 탁월한 영도자이며, 조선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라고 당 규약에 명시하여 절대화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인민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사상정신적 특질과 기본풍모로 하는 당과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과 도덕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개조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에 포섭 학습 세뇌된 '종북세력'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최고수준의 공산주의적 풍모와 자질을 체현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개조 된 것이다.

이들은 김일성(김정은)이 안겨 준 정치적 생명을 '제일의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 수 있어야 한다"고 세뇌 되었다.

종북분자는 "한 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한다"는 신조를 가진 혁명투쟁의 로봇으로 변조됐다.

따라서 주체형의 혁명가를 자처하는 종북분자는 소위 유일사상10대원칙에 입각, 수령과 당에 절대충성하고 모조건 복종할 의무와 도리를 다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이자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당이 결심하면"무엇이고 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종북분자는 "노동계급은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폭력〉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김일성)"는 교시에 입각 폭력을 혁명투쟁의 유일한 주 수단으로 숭상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북한'정치사전'에 수록 된 폭력투쟁(暴力鬪爭)에 대한 정의와 해설을 보면, 폭력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의 정권전취를 위한 결정적 투쟁 형태이며 착취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최고 형태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폭력투쟁을 통해서만 반동적인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타도하고 국가주권을 장악할 수 있다.

물론 집회, 시위, 파업 등과 같은 비폭력투쟁도 혁명투쟁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주권전취의 결정적 형태로는 되지 못한다. 무장한 적대계급은 인민대중의 무장투쟁에 의해서만 격파될 수 있고 반혁명적 폭력은 혁명적 폭력에 의해서만 분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정치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각이한 형태의 대중투쟁, 모든 비폭력투쟁을 폭력투쟁, 무장투쟁에로 지향시켜야 한다.)고 촛불폭동의 속성과 종북분자의 극단적인 폭력 행태를 밝혀놓고 있다.

소위 '위수김동' 族이라 부르는 지하당간첩과 전위조직맹원들은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 ▲당과조직에 대한 무조건 복종 ▲강령과 규약, 임무 불포기 ▲비밀사수와 조직보위 ▲혁명적 기율과 동지애를 목숨 바쳐 관철 할 것을 선서하고 실행하는 말하는 로봇, 폭력투쟁 광기를 발산하는 폭도들이다.

<성명서>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시민사회 대표들은 박근혜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점은 한마디로 박근혜당선인께서 이명박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아 달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30만표라는 유래없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으나 집권 5년동안 종북좌파 및 종북좌파 비호세력은 훨씬 더 늘어났고, 그 결과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파시민사회가 너무도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후보가 당선된 것은 정말로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석기, 김재연을 국회에서 추방시키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실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통한 NLL무력화 등의 공약을 제시하여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세력 대 친북한세력간의 대결로 비쳐졌기 망정이지, 그렇지만 않았다면 새누리당은 영락없이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 후 제20대 대선에서도 대한민국세력과 친북한세력간의 대결이 재연되면 절대 안됩니다. 여든 야든 다 대한민국세력이 되어야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내세우면서 종북좌파 세력을 척결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아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종북좌파 세력은 더 크게 성장했고 그 결과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절대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집권초기 2년의 기간 동안 종북좌파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종북좌파 척결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종북좌파세력이 위법을 하면 이를 단호히 처벌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국민대통합 방침은 MB정부의 중도실용과 같은 것이 되면 절대 안 되고 국민대통합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파 시민사회는 대대적으로 전교조 추방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여 조금이라도 법위반이 있는 경우, 이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장관들은 전교조 등 종북좌파 척결의 의지가 분명한 분으로 택해야 합니다. 이렇듯 좌파척결 운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통합당은 절대로 종북좌파 비호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단체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파 시민사회가 취약하면 이명박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파시민사회는 이명박 대통령시절에 노무현정권 때보다 더 약화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시민운동이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갔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훨씬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이명박 정부를 대변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우파시민사회를 강력하게 육성해야 합니다. 우파시민사회가 약하면 이를 적극 키워야 합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우파시민사회와 긴밀하게 국정운영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우파 시민단체 대표들을 자주 만



나주시기 바랍니다.

우파 시민사회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수석과 시민사회비서관 인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선을 할 때에는 우파 시민사회의 의견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근혜후보의 당선을 위해 수고한 우파시민단체들을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파시민운동은 맥이 빠지고 참여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점에서 우파 시민운동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셋째로 역사 바로세우기를 분명하게 해서 왜곡된 좌파적 역사관이 젊은이들에게 잘못 교육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국민이 이승만대통령과 박정희대통령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정권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로 시민사회의 의견이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진 중에는 대통령의 생각을 실행하는 사람만 있었지, 대통령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거나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비서진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 시기부터 시민사회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31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시민단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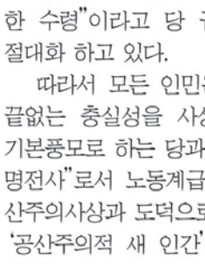
상임고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공동대표 고영주 (국가정상화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대한민국사랑회 회장)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김진홍 (두레수도원 원장) 박영구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복거일 (소설가)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장 최인식(국민건강연합 대표) 문의 070-7683-3051 김규호 공동사무총장 (010-9618-0722)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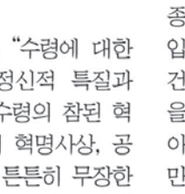
총회장 지태영 목사 / 총 장 노왈수(D.R.E)

총 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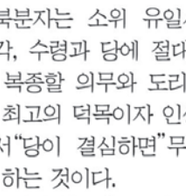
지태영 목사
한빛전원교회

부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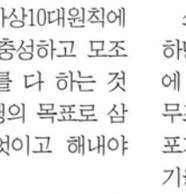
이재성 목사
신천교회

부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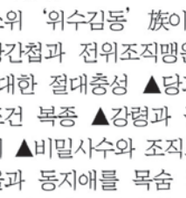
박종선 장로
동천교회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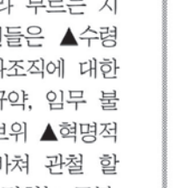
김동민 목사
창대교회

회록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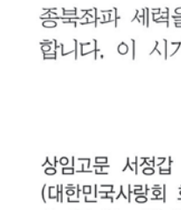
김일수 목사
동신교회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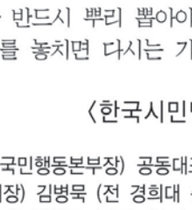
김인근 장로
숭덕교회

부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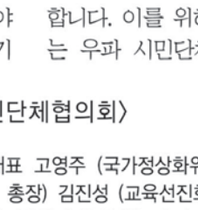
최명철 장로
성산교회

시찰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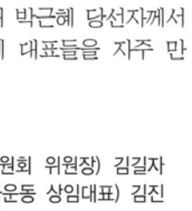
엄광일 목사
한사랑교회

시찰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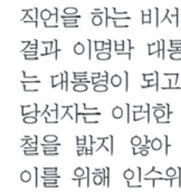
박점수 장로
인천교회

선교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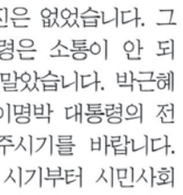
손종필 목사
늘푸른교회

선교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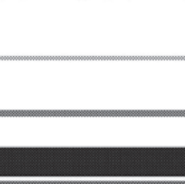
김영대 목사
영암교회

선교부부장



김은태 장로
동천교회

교육부장



강 철 목사
대천교회

교육부부장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고시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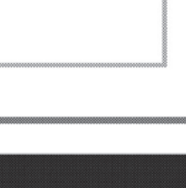
지태일 목사
새빛중앙교회

재단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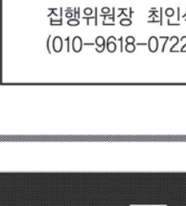
추영조 장로
신천교회

재단부부장



한명학 장로
대천교회

재판국장



윤정현 목사
해맑음교회

총 장



노왈수(D.R.E) 박사

2013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장총회와 각 노회, 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총회장 지태영 목사 외 임원일동

총회 (순장)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Tel : 02) 845-7711 / Fax : 02) 844-7711
Home page 문의 : 041) 853-9966 / E-mail : lov153@naver.com

한기총 제24회 정기총회 및 시무감사예배

한기총 이대위 류광수 목사의 이단 규정 무리 있다 결론



한기총 제24회 정기총회 및 시무감사예배가 3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열렸다. 공동회장 이승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공동회장 정학채 목사의 대표기도,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인사말씀, 여성위원장 이근희 권사의 딤후2:20~21 성경봉독 등에 이어 명예회장 오관석 목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제하의 설교를 했다.

이날 축사에는 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 황우여 장로와 증경회장 지덕 목사, 직전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명예회장 조경대 목사가 축사를 통해 새해를 축복했다.

이어 "한국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2014년 WEA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 정부를 위하여","2013년 평양 부활절연합예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각각 공동회장 윤종관 목사와 조성훈 목사, 정진성 목사, 교회발전위원장 박상훈 목사가 특별기도를 했고, 총무 최명우 목사의 광고 후에 증경회장 이만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의장인사와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전회의록 채택, 2012년 경과 및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임원 및 상임위원장 인준 및 특별위원장 임명, 기타 회무처리 순으로 진행되고, 미진한 사항은 임원회에 일임하고 폐회됐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류광수 목사의 공청회 후 결과는, 일괄보고가 통과되므로 적어도 한기총에서는 사실상 이단에서 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이날 오전 8시 열린 임원회에서도 이대위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한기총 이대위는 "류광수 목사(다락방운동) 신학사상 검증보고서"를 통해 "류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 3가지로 보고를 했는데, 그 첫째가 "류광수 목사가 주장하였다고 하는 천사동원권과 사탄결박권은 신학적 미숙과 표현력의 부족으로 오해를 받았으나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하나님의 권세로 하시는 일을 미숙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고했다.

두번째는 "류광수 목사가 기성교회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한 것은 본인의 부덕의 결과로써 본 위원회 앞에서 공개사과 하였음"을 밝혔고, 세 번째 "예수님의 무죄성과 관련하여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한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영접을 구별함으로 재영접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언급한 것 뿐이고, 재영접설은 전혀 주장한 바 없음을 검증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날 또한 홍재철 대표회장은 "3월 28일부터 4월3일까지 WEA대표들과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화해의 물꼬트는 작업도 진행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부활절연합예배가 남북이 하나되어 드려지는 역사적인 사건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조용기 목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키로 했으며, 한기총에서 시작된 아가페 교도소 사역에 한기총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24회 총회 선언문을 통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2013년과 대한민국 기독교의 브랜드 가치 제고, 기독교 본연의 자세인 섬김과 봉사의 원년,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강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추구권" 회복, (가칭)"한국기독교올부즈맨" 10만 명 양성, 한기총창립관 건립의 원년"을 선포했다.

특히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2013년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교회 성장 및 발전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7년까지 10만 교회 2,000만 성도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추구권 회복은 주일(일요일) 국가고시 시행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아 국민 행복추구권이 포기되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정부와 협상을 통해 주일 국가고시 폐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또 (가칭)"한국기독교올부즈맨" 10만 명 양성과 관련해서, 홍재철 대표회장은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에는 기독교 안티들의 활동이 있다"면서, "기독교를 음해하는 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그들이 변하든, 한기총이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해야 한다"면서 "10만명 한국청년기동대를 조직해,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게 된다"이라고 밝혔다. 한국청년기동대는 각 교회 청년들을 추천받아 강한 군대로 훈련시켜 한국기독교를 책임지는 기독청년으로 양성하고, 기독교에 대한 폄하 및 핍박에 적극 대처해 나가게 된다.

신바람 웃음만 남겨놓고...

황수관 박사, 급성 패혈증으로 잠들었다!



'신바람 웃음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황수관(강남중앙감리교회 장로) 연세대 외래교수가 지난해 12월 30일 급성 패혈증으로 향년 67세로 별세했다. 황 교수는 지난 12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 자택에서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서울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며 간농양으로 인한 급성 패혈증으로 이날 오후 1시 잠들었다.

경북 경주 안강에서 출생하여 그는 가난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을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내 대중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기독문화선교회(Kimun.or.kr)를 2004년 설립, 전신과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오염 문화를 창조주의 목적대로 되살리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그는 대구와 경북대 교육대학원을 야간으로 졸업한 뒤 국민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경북 의대 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연세대 의과대 생리학 교수와 세브란스 건강증진센터 부소장을 지냈다. APEC 정상회담 홍보대사, 2022년 한일월드컵 자문위원,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대사를 지냈으며, 별세 전까지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국제협력단 홍보대사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협력대사, 새누리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었다. 지난 10월엔 세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대외협력특보로 임명받았다. 황 교수는 그동안 북한 기아 어린이 돕기와 동남아 쓰나미, 미국 허리케인, 아이티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성금을 기탁하는 등 남다른 사랑과 온정을 베푼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저보세요 저보세요' 그래서 웃잖아요' '웰컴신바람 인생' '9988건강법' '황수관 박사와 실컷 웃어보자' 등이 있다. 최근까지도 TV에 출연했던 황 교수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한목소리로 고인을 추모했다.

유족은 부인 손정자(67)씨와 아들 진훈(미국 유학)씨, 딸 진아, 명아씨, 사위 박창환(사업)씨와 최명원(미국 거주)목사가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이며, 2013년 1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석촌동 강남중앙감리교회(조남수 목사)에서 발인예배를 드렸다.

한국 기독교 애기봉에 2012년성탄트리 점등

북녘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전달하길 소망

한국기독교가 경기도 김포시 월곡면 조강리 애기봉 전망대에 2012년 성탄트리를 점등하고, 북녘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전달되길 소망하는 점등식 감사예배를 드려 한국교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애기봉 점등식 행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 교회(담임 임정석, 원로 방지일 목사), 탈북교연(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 한목원(총재 방지일 목사),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등이 주최를 했으며, 한강중앙교회, 새문안교회, 고척교회, 세계복음화운동본부, 한국교회개혁연대, 한국중앙교회 등이 후원을 해서 이뤄지게 됐다.

이날 점등식 감사예배는 설교에는 고충진 목사의 사회로 열려, 최병두 목사의 인사말, 방지일 목사의 '빛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설교,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김탁기 목사와 이혜훈 국회의원의 축사, 김충립 박사의 경과보고, 성탄트리 점등식, 기지협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피종진 목사 1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1(화)	오전	용인 성산수양관(원장 윤호균 목사) ☎(031)322-9196
1(화)	저녁	서울 아현반석교회(임믿음 목사) ☎ 017-251-5036
2(수)~ 4(금)		분당 열방교회(김형섭 목사) ☎ 010-6277-8500
3(목)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6(주)	오후	광명 대한교회(조주원 목사) ☎(02)2060-0126
7(월)	오후	서울 사랑의교회(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7(월)~ 9(수)		부산 희망의교회(조경석 목사) ☎(051)612-9191
10(목)~12(토)		서울 시온성교회(임후자 목사) ☎(02)843-8885
12(토)	오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수도노회 (노회장 홍정표 목사) 제직세미나 장소 : 서울 광현교회(김창근 목사) ☎(02)2201-5312
13(주)~16(수)		대전 창대감리교회(이찬용 목사) ☎(042)624-1004
14(월)	저녁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17(목)	오후	대구글로벌치유센터(원장 강은숙 목사) ☎ 010-6358-8999
18(금)	오전	합동해외총회 서울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18(금)	오후	서울 소망교회(연인애 목사) ☎(02)573-7797
19(토)	오전	부천 갈릴리교회(조예환 목사) ☎(032)657-5117
19(토)	오후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제직세미나 ☎(02)3411-9191
21(월)~24(목)		태백순복음교회(오대석 목사) ☎ 010-5372-0735
25(금)~26(토)		부산 JSTV 위성방송센터 (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27(주)~30(수)		시흥 우리교회(장성화 목사) ☎(031)314-9077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온천하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최대의 희소식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선물로 모든 음식에서 비롯된 (식원병환자) 질병과 허약함을완전 해방시키는 특수 (콩나물,숙주나물) 재배기를 저로 발명케 하셨습니다.



집사 최영식
주사랑교회

검증

대전 소재 광음교회 이덕용 목사님 (시무)
2년여에 걸쳐 '버리지 않는 전도지' 동영상을 YouTube 에 올려 놓으심.

주소: 대전시 서구 도마2동 316-7
P.H: 010-4491-7757 / 010-9372-1163
Tel: 045-525-1163

특징 및 장점

※생산자
* 익일 생산량 판매시 한 가정의 주 수입원이 된다. (일 60kg 이상)
* 좁은 공간에서 작업 생산이 용이하다. (H 1980mm W 1140mm D 800mm)
* 물의 소비량과 전기 소모량이 적어 생산비가 저렴하다.
* 어느기관에서 검증해도 무독성이다. (독성 무검출)

※소비자
* 생식용으로 맛과 영양이 탁월하다. (주식으로 사용 가능)
* 생주스로 갈아마실 시, 즉시 체온상승을 느낄 수 있으며 3일후 몸의 변화를 느낀다.
* 장기 섭생하면 식원병으로 인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 치료하신다. (식원병: 변비, 관절병, 고혈압, 당뇨, 아토피, 비만, 독소 등등)

※사업자
* 가정, 식당, 교회, 기도원, 요양원, 아파트 노인회, 미자립교회, 선교지 공공기관 공동체, 사회적 기업, 해외수출 등등 많은 판매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허등록및 실용신안
* 특허 제10-0617624호 ∩형 배수관 콩나물 재배상자
*실용신안 제0351095호 침수식 콩나물 재배상자

판매처: 팜메이커㈜ 대표 최 영 식
☎ 010-8852-5766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162-7

딜러 모집
010-8852-5766